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5. 4

2nd Week

목 차

1. 본문

- ▷ 중국, 전국표준화작업회의 개최
- ▷ NIST, 자문위원회 2014 리포트 공개
- ▷ NIST,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의견 요청

2. 단신/토막뉴스.....7 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중국, 전국표준화작업회의 개최

보도날짜 2015.03.31

출 처 MIIT

사 이 트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1293907/n11368223/16526189.html>

- 2015년 3월 30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북경에서 전국표준화작업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함. 공업정보화부의 차관인 화이진펑(怀进鹏)이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함
 - 심화개혁과 정부기능의 변화에 따라, 표준화작업은 공업정보화부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감을 언급
 - 표준은 이미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제품 교환의 기준이며, 품질평가에 근거해서는 전체 산업을 성장시키는 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대체할 수 없는 기술 인프라, 기술지원, 기술가이드의 역할을 한다고 연설
 - 2015년은 개혁혁신 심화의 해 임을 강조하면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은 <제도 체제의 개혁 심화에 관하여 혁신중심의 개발전략 구현의 가속화 의견>과 <표준화 개혁 프로그램>을 잇따라 공포하고,
 - 본 회의에서는 표준화작업의 개혁목표를 명확히 했으며, 표준화 사업의 발전방향을 명시했고, 현존하는 표준화 관리시스템과 작업체계는 중요한 조정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또한 중국은, 산업 및 통신 산업에서 전면적인 표준화 심화개혁의 요구사항에 적응해야하고, 산업발전 중에 존재하는 중요한 표준화 문제 등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제조강국과 인터넷강국을 위한 글로벌 전략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언급

- 개혁혁신, 융합발전의 이념으로써 표준화작업체계의 개혁을 추진하고, 산업발전과 업종관리에서 필요한 표준의 제정과 실행을 가속화해야한다고 말함. 또한, 국무원의 표준화작업 개혁조치 실현, 기술표준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착수, 중국표준의 국제화수준 향상, 새로운 민생표준홍보 모델 활성화, “십삼오(十三五)”¹⁾ 표준화 개요 연구 등 여섯 방면의 작업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표준기술 수준과 국제화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1) 십삼오(十三五)계획: 중국 국가개발을 위한 13번째 5개년 발전계획(2016-2020). 중국은 1953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국가 단기 계획을 수립하였음. 첫 번째 “오개년 계획”을 줄여서 “일오(一五)”라고 칭함. “십삼오”계획의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3번째 오개년 계획 강령”임. 십삼오 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고, 십이오 계획이 끝난 후 실시될 예정임

출처: 바이커백과 (http://www.baike.com/wiki/%E5%8D%81%E4%B8%89%E4%BA%94&prd=so_1_doc)

2. NIST, 자문위원회 2014 리포트 공개

(NIST Advisory Committee 2014 Report Released)

보도날짜 2015.04.01

출 처 NIST

사 이 트 http://www.nist.gov/director/vcat/201503_vcat_annual_report.cfm

- 연방표준기술국(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외부 자문 위원회는 4월 1일 의회에 사이버 보안, 첨단제조, 첨단통신, 재난 복구 및 안전에 관한 NIST의 연차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전함
- 첨단기술의 시찰위원회(VCAT, Visiting Committee on Advanced Technology)는 NIST의 전략적 방향, 정책, 실적을 검토하고, 상무장관, 의회,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가치평가와 NIST 프로그램, 미국 과학기술 및 경제와의 관련성 등을 제공한다고 함
- 위원회는 암호화표준과 가이드라인의 개발과정에 관한 2014년 리포트에서 개요를 서술한 표준에 대한 NIST의 대응을 인정했다고 전함. 위원회는 또한, NIST의 장기연구, 협력, 기술이전, 및 여러 프로그램과의 확장서비스 같은 첨단제조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첨단통신에 관하여는, NIST가 상호운용이 가능한 긴급 구조 망 (interoperable first responder network)을 발전시키고, 스펙트럼 공유 및 차세대 통신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측(metrology)과 측정(measurement)요구를 지원하는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보고서는 추가적인 협력과 NIST의 새로운 우수프로그램 센터(NIST's new Centers of Excellence program)를 통한 국가 우선 순위 분야에서의 외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NIST의 노력이 실려 있다고 함
- 2015년 2월, NIST는 지역사회탄력성 최고기관 (Community Resilience Center of Excellence)을 설립하기 위해 콜로라도주립대학과 2000만 달러 상당의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위원회는 NIST 재해복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계획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함
- 다음 VCAT 회의는 2015년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게이더스버그(Gaithersburg)에서 열릴 예정이고 대중에 공개된다고 함. 이전 보고서와 위원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NIST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NIST,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의견 요청

(NIST Request Comments on Its Big Data Framework Development)

보도날짜 2015.04.06

출 처 NIST

사 이 트 http://www.nist.gov/itl/bigdata/20150406_big_data_framework.cfm

-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에 “빅데이터”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작업의 주된 노력의 일부로써, 연방표준기술국(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NIST 빅데이터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했다고 함

- 일곱 권으로 된 빅데이터 기초문서는 국제 표준 사회에 미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1권: 정의(Definitions)

2권: 분류체계(Taxonomies)

3권: 사용 사례 및 일반 요구사항(Use Cases and General Requirements)

4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Security and Privacy)

5권: 아키텍처 백서 설문조사(Architectures White Paper Survey)

6권: 참조아키텍처(Reference Architecture)

7권: 표준 로드맵(Standards Roadmap)

- 빅데이터는 우리의 네트워크, 디지털, 센서레이든(sensor-laden), 그리고 정보중심 세계에서 데이터 홍수를 설명하는 단어임. 빅데이터 컬렉션은 테라바이트(수 조 바이트)와 페타바이트(수천 조 바이트)로 측정됨. 데이터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에서부터 데이터 포인트를 1초에 4천만 번까지 제공하는 물리적 경험 등 까지도 포함한다고 함. 새로운 기술은 데이터의 빠른 성장을 활용하도록 진화하고 있음

-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은 혁신, 연료거래 등을 촉발하고 진보를 이끌 수 있다고, 상업과 학계 및 정부 지도자들이 합의한 바 있음

- 방대한 데이터 자원의 이용성은 이 전에는 생각 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 초기에 잠재적인 유행을 감지하는지, 합성도 하기 전에 어떻게 새로운 재료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이 있음
- 그러나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압도하는 빅데이터의 능력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고 함
- 데이터의 볼륨, 속도, 복잡성이 증가하는 속도가 데이터 분석과 관리, 전송 등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앞지르고 있다고 함
- 빅데이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의 합의 부족은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진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함
- 빅데이터 솔루션을 정의하는 속성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했던 관련 애플리케이션 및 전통적인 데이터 환경과 빅데이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빅데이터 시스템이 어떻게 현재의 데이터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을까?
- NIST의 워창(Wo Chang) 디지털 데이터 관리자는 NIST의 빅데이터 목표 중 하나는 데이터 과학자가 기본 컴퓨팅 환경에 대한 걱정 없이 주어진 데이터 소스에 대해 분석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벤더 중립적이고, 기술 및 인프라 독립적인 참조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하여 각 국의 정부, 학계, 업계 회원들이 모여 NIST 빅데이터 공공 작업반(NBD-PWG)을 형성한바 있음. 작업반은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안된 참조아키텍처, 그리고 표준 로드맵에 대한 정의, 분류체계, 주요 요구사항 등을 합의했다고 전함

단신/토막뉴스

ETSI, 양자안전암호화에 관한 산업규격그룹 발족

<http://www.etsi.org/news-events/news/947-2015-03-news-etsi-launches-quantum-safe-cryptography-specification-group> (2015.03.30.)

- ETSI는 2015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ETSI 첫 번째 회의에서 양자안전암호화(QSC, Quantum Safe Cryptography)에 관한 새로운 산업규격그룹(ISG, Industry Specification Group)을 발족했다고 발표함. Infinity 주식회사의 마크 피컨(Mark Pecen)이 회장으로, CESG의 마이클 그로브(Michael Groves)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음
- 회의 중,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시작하기로 동의함
 - 양자 안전 알고리즘 프레임워크(Quantum safe algorithmic framework)
 - 암호화의 기본적인 특징(Cryptographic primitive characterization)
 - 암호화의 기본적인 적합성 평가(Cryptographic primitive suitability assessment)
 - 양자 안전 위협 평가(Quantum safe threat assessment)
 - 양자 안전 표준 평가(Quantum safe standards assessment)

CCSA, 통신서비스표준화위원회의 첫 업무회의 개최

<http://www.ccsa.org.cn/worknews/content.php3?id=3112> (2015.04.07.)

- 2015년 3월 19일, 중국통신표준화협회(CCSA)는 북경에서 국가통신서비스표준화기술위원회 (이하 통신표준화위원회라고 함)를 소집하였고, 첫 번째 업무회의를 개최했음. 중국 서비스업 표준화의 상태, 통신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 현재까지 수행된 통신서비스 표준화 작업, 통신서비스표준화회의의 설립배경 및 기획준비과정, 통신서비스표준화위원회회의의 현장과 이후의 작업 구상 등을 소개하였다고 함
- 주로, 고정 또는 이동 음성서비스,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인터넷 접속 및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데이터통신 서비스, IP전화, 위성통신, 정보서비스 등의 통일된 서비스 표준의 재개정이 필요하거나 표준화 및 관련연구가 필요한 방안을 다룬다고 함